• 언어 영역 •

정 답

1	④	2	④	3	⑤	4	④	5	②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⑤
21	③	22	③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④	29	⑤	30	③
31	②	32	②	33	⑤	34	①	35	③
36	②	37	①	38	④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④	44	②	45	①
46	①	47	②	48	④	49	①	50	②

해 설

[1] 이제 교양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이백여 년 전, 정조 14년, 당시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이덕무, 박제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 하나를 정조에게 바칩니다. 정조는 그 책에 '무예도보통지'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이름은 무예의 실제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무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괄하는 책이란 뜻입니다.

정조는 이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기 위해 당시 무예의 고수였던 백동수에게 명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예를 발굴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라져가고 있던 전통무예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후 실학자 이덕무와 박제가를 투입하여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예도보통지'는 단순히 무예를 통합하여 기록한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무사들의 교육이나 무과 시험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고유의 무예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무예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수한 것들을 엄선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록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2] 이번에는 좌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 : 최근 해외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언어 장벽일 것 같은데요.

여자 :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먼저 이주여성들이 우리말과 글을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 :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지원 단체 주도 하에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과 글을 이주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 :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남자 : 교재도 문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수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교재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이주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자 :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요리 연구반'은 이번 축제에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맛을 보여 드리기 전에 먼저 향신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려 드릴게요.

향신료라고 하면, 흔히 강황, 후추, 겨자 등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식물의 열매나 씨앗, 껍질 등에서 얻은 것으로, 향이 있고 매운 맛이 나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향신료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향신료는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식욕을 돋우어 줘요. 또한 향신료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성분은 타액이나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구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늘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노화를 방지해 주기도 해요. 또 최근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대요.

맵싸하고 자극적인 진저롤 성분이 있는 생강도 식욕을 돋우어 주지요. 게다가 생강은 멀미 억제 효과가 멀미약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답니다. 참, 생강은 닭고기나 생선 요리에는 잘 어울리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요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또 최근에는 마늘과 생강이 식중독균을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향신료 가운데는 살균과 방부 효과를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일수록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 온 듯해요.

그렇다고 향신료를 무턱대고 쓰면 곤란해요. 향신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성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환자가 먹으면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부엌에서 써온 향신료들이 요모조모 쓸모 많다는 것, 아시겠죠?

[4-5] 이번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대 보건행정학과 박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주치의 제도에 관해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주치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교수(남) : 네. 주치의란,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이 전담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행자(여) :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겠군요?

교수(남) : 그렇죠. 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의사가 환자와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일도 쉽겠죠.

진행자(여) : 그렇다면 주치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수(남) :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그 의사에게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에게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 유명 병원이나 종합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도 있을 텐데요, 혹시 주치의 제도가 환자의 진료 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수(남) : 주치의 제도를 장려한다고 해서 환자의 진료 선택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는 환자와 전문 병원, 종합 병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진행자(여) :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데 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수(남) :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의료 영역도 국민, 의사, 정부의 입장과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주치의 제도를 잘 다듬어서 국민, 의사, 정부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여) : 그렇군요. 기존의 의료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치의 제도가 새롭게 느껴지겠군요.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 [출제의도] 강연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예도보통지'가 당시 무사 교육이나 무과 시험에 활용되었다는 내용과, 동양의 우수한 무예를 엄선했다는 점에서 세계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크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론과 실제가 결합된 세계 유일의 무예서라는 내용은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무예의 실제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무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괄한 책이라는 뜻입니다."라는 말에서 '무예도보통지'가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다. 정조가 백동수에게 무예를 발굴하게 하고 이덕무와 박제가를 투입했다는 내용, 한국, 중국, 일본의 무예 중 우수한 것들을 엄선하고 정리했다는 내용에서 제작과정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좌담을 듣고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좌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문화가정의 언어 장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이 우리말과 글을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나 교재, 교육과정, 전문 인력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좌담의 주제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맵싸하고 자극적인 진저롤 성분을 함유한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돋우어 주지만, 오히려 위염 환자에게는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⑤는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4. [출제의도] 인터뷰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한다고 했으므로 ④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는 진행자로서 주치의의 의미, 주치의 제도의 운영, 주치의 제도 시행의 난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해 줄 것,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이 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유추의 방법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쪽'은 '고전 읽기'에, '쪽빛'은 '고전 읽기를 통해 얻은 지혜'에 대응된다. '좋은 책을 선택하기 위해 책을

보는 안목이 높은 사람의 도움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를 유추해 낼 수 있는 내용은 <보기>에 들어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향에 따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ㄹ로부터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으며, ㅁ으로부터는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건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ㄹ과 ㅁ을 활용한다면 지진 발생 시에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건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에는 '~힘들었겠군요'라는 공감이 표시되었고, '다가가 보세요'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관용적 표현도 쓰여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댓글이다.

[오답풀이] ①, ④ 공감 표시와 관용적 표현이 없다. ③, ⑤ 구체적 방안이 없다.

10. [출제의도] 어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 '양하다'는 활용 가능하나 '척하다'는 활용 불가능하다. '양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 뒤에서 '~은 양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모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비해 '척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은 척하다', '~는 척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나 행동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물건인' 뒤에는 '양하다'만 올 수 있다.

11. [출제의도] 부사어의 역할과 종류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의 '확실히'와 ㄷ의 '아주'는 모두 '수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12.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문맥상 책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책에 정신을 파는'이나 '책에 정신을 차리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책에 몰두해 있는'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3-16] 현대시

출전:

(가) 백석, 「수라」

(나) 이형기, 「봄밤의 귀뚜리」

(다) 김광규, 「늙은 소나무」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거미', (나)에서는 '벌레', (다)에서는 '늙은 소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의 거미는 시인이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대상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방안과 찬 밖을 헤매는 거미를 통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드러난다. (다)에서 시인은 '새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자연보호'를 받지만 사실은 '한번 쉬고 싶은' 소망을 거부당하고 있는 소나무를 통해 늙음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소나무는 시대와 현실, 늙음이라는 생명 현상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나)의 '벌레' 역시 시인이 '생명'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14. [출제의도]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뒤 연으로 갈수록 상황과 정서가 점차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15. [출제의도] 시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푸른 눈을 감으며'와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은 모두 죽어가는 소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시구이다. 그러면서 각각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과 죽음을 상징하는 '붉게'라는 대조적인 색채이미지의 시어를 포함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특정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밤중의 벌레 소리를 통해 화자는 '원시에서 현대까지' 이어져온, 생명이 갖는 '열심히 열심히 사는 당당한 긍지'를 발견하고, 생명의 의미, '하늘의 뜻'을 성찰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에게 '봄'은 생명의 의미와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화자의 내적 고뇌는 나타나 있지 않다.

[17-20] 사회

출전: 정재승, '비합리적 인간들의 경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개발 시급'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복잡계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인 파머 박사의 모델 하나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다른 모델들과의 유형 비교는 나타나 있지 않다.

18.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기존의 주류 경제를 비판하는 복잡계 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항상 안정된 평형상태에 있으리라고 믿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과 달리, 현실 경제를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작고 불규칙한 패턴들과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패턴은 불규칙하고 복잡한 시장 변동에 내재한 질서를 의미한다. 주식 거래 시장에서 각 개인들은 각자 선택한 전략에 의해 주식을 거래하는데 이 과정에서 패턴이 형성되고 소멸된다. B기업의 주식 가격이 500원까지 떨어지면 이후에 상당기간 오르는 추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고, 김 씨가 주식을 구입한 이후 100원으로 떨어진 것도 새롭게 형성된 또 하나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요동(搖動)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심하게 흔들리거나 움직이다.'이다. ① 변동(變動)하다 ② 이동(移動)하다 ③ 혼동(混同)하다 ④ 유동(流動)하다

[21-24] 현대소설

출전: 김원일, 「미망(未忘)」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종합하여 작중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머니가 처음 시집왔을 때와 달리 육이오 동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완전히 갈라서서, 두 사람 사이에 '살이 낀 듯' 살아왔다는 서술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여전히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는 ③은 타당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특징적인 서술 방식에 드러나는 의미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할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만 드러날 뿐, 그들의 내면까지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③은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풀이] ㉮는 서술자의 진술 속에 삽입되어 있는 발화이다. 문단을 나누지 않고 서술자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바로 앞에 있는 서술자의 진술과 내용상 긴말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술자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어머니의 입을 빌려 서술함으로써 1인칭 서술자가 지니는 서술 범위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

23. [출제의도] 주요 소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담배는 할머니 자신의 불행한 삶,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관계가 깊은 소재이다. 특히 위독한 할머니 곁에 놓인 재떨이 속의 담배꽁초는 '나'로 하여금 '할머니의 이빨이나 화장 뒤 바스라진 뼛조각'을 연상시키고, 이것은 다시 담배와 관련된 할머니에 대한 '나'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할머니가 이승의 한을 남긴 채 임종을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출제의도] 소설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모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이므로 ⑤는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25-28] 인문

출전: 제임스 V. 맥글린 · 쥴즈 J. 토너, 「도덕률과 인간」

25. [출제의도]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성의 작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도덕성 판단 기준은 도덕률과의 관련성, 이성의 작용 여부, 자유의지의 발휘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기> 사례의 간호사는 이성은 작용한 상태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환자를 식물인간이 되게 했다. 사례의 정황상 이성이 작용하고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으로 볼 때 간호사의 행위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①이 타당하다.

27. [출제의도] 전제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동기가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는 것에서 이끌어진 주장이다. 그런데 행위의 동기가 자유의지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인간의 행동은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명제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가(轉嫁)할'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울'이라는 의미이다. '물을'은 문맥상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추궁할'의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부과(賦課)할'이 적절하다.

[29-31] 언어

출전: 이익섭, 「높임법」

29.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에서는 높임법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높임법의 체계는 앞에 이미 서술되었으므로 (마)의 중심 내용을 높임법의 체계와 의의로 정리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의 제시된 원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희가 ~ 갔어요'라는 부분에서 주체 높임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체-]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할아버지를 모시고'에서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였으므로 [객체+]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갔어요'에서 해요체를 쓰고 있으므로 [상대+]로 표시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인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ㄴ에서 영민은 친구이자 직장 상사인 성규에게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다. 그러나 '결재를 부탁드려도 되다'의 주어는 영민 자신이다. 여기에 주체 높임법 '-시-'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를 쓰지 않음으로써 높임법의 등급을 조정했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반응이다.

[32-34] 예술

출전: 임재철, '고전적 할리우드 영화'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첫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서, ③와 ⑤는 둘째 문단에서, ④는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②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는 '~그 시스템 내에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배우, 제작진 등이 철저히 관리 감독되었다'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 문단에서 '관객은 영화 제작 과정이나 편집 기술 등 영화 외적인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스크린 위에 창조된 허구적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관객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조작된 스크린 속 세계에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현실 세계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관객의 수동성'을 유추할 수 있다.

[35-39] 시가 복합

출전

(가) 김병연, 「영립(詠笠)」

(나)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다) 박지원, 「수소완정하야방우기(酬素玩亭夏夜訪友記)」

3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화자가 추자도 유배지에 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먹을 것이 떨어져 이웃에서 동냥을 얻어오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 주인에게서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 후 신 삼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상의 묘사 속에 화자의 비애가 드러나고 있다. (다)는 화자가 시골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속에서 일상의 모습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일상의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6.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갈매기'는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자연물이고, ㉡ '외기러기'는 임 생각이 나게 하여 화자의 비감을 고조시켜 주는 자연물이다.

37. [출제의도] 두 작품을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화자가 이웃에서 동냥을 얻어오며 주인에게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고, [B]는 가난한 서울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둘 다 기대와 현실의 모순을 느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8.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짚 한 단 추려 놓고 신날부터 꼬아보자'라는 말은 더 이상 동냥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화자가 다른 일을 찾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소망이 '임'의 공간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39.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시골에서 보내온 가족의 편지'를 받으면 '평안'만 확인하고 만다고 했다. 따라서 여기에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0-43] 과학

출전: 이은희, 「DNA, 유전물질로 의심받다」

40. [출제의도] 글의 총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이버리는 그리피스의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계속하여 S형 폐렴균으로부터 추출한 DNA가 R형 폐렴균을 S형 폐렴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키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DNA가 유전물질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DNA가 유전물질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41. [출제의도] 글 속의 설명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열처리를 한 S형 폐렴균'과 살아 있는 S형 폐렴균은 모두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ㄴ에서 '열처리를 한 S형 폐렴균 대신 살아 있는 S형 폐렴균을 넣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글 속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나머지 넷은 유전물질인 DNA와 관련된다.

43. [출제의도] 접두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뒤집다', '뒤바꾸다'에서 '뒤-'는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갖는 접두사라고 볼 수 있다.

[44-47] 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김원전」

44. [출제의도] 등장인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주는 원수의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공주가 소복을 벗고'라는 구절을 보면, 공주는 굴속에 갇힌 김원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게 주인이 연적에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에 가깝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당시 독자들의 보편적 욕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46. [출제의도] 작품 속 소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원은 연적을 가지고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려다가 가게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화를 입는다. 그 후 용녀가 금고양이로 변신하여 가게 주인에게서 연적을 되찾아오고, 상에게 전달된 연적 속에서 선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김원이 묻힌 곳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를 보면 연적으로 인해 김원이 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7. [출제의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독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게 주인은 김원에게서 빼앗은 연적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것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있으므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후안무치'가 적절하다.

[48-50] 기술

출전: 박영욱, 「와이트리시티」

48.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전자기 유도 방식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전자기 공명 감응 방식을 이용한 솔야치 교수의 실험, 전자파 전송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이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된 상태인지 그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4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대상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의 스플래시패드는 자기장을 형성하여 휴대폰에 전기를 유도하는 장치로, 둘째 문단에 나오는 교통카드의 단말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셋째 문단의 솔야치의 실험에 따르면 전자기 감응 공명 방식은 스플래시패드처럼 대상에 접촉하지 않아도 공명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전송된다. 이처럼 ㄱ은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의 직진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①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50. [출제의도] 글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솔야치 교수의 실험은 전자기 감응 공명 방식인데, 이 기술은 '두 물체의 고유진동수가 같으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공명 현상'(셋째 문단의 첫 문장)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솔야치 교수의 실험을 위해서는 전기를 보내고 받는 두 구리 코일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야 한다.